

목장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해외연수 과정

김 경 미 _ 전남 영광군 안산목장



눈을 감고 회상에 잠겨본다.

TV에서, 영화 속에서, 동화책에서 보았던 모습들, 뽀족뽀족한 지붕들과 초록빛 들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얼룩소...

엇그제 일이었는데 아주 오래전 일인 양 아련히 떠오른다.

입가에는 어느새 웃음이 번지고 있다.

난생 처음으로 유럽이라는 곳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기고 빠진 것이 없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집을 나섰다. 아침차유를 마친 남편이 광주 터미널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을 보니 남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남편에게 못내 미안함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다.

인천공항 도착. 함께 동행 하는 언니들의 얼굴이 보였다. 어찌나 반갑던지...

시골냄새 풍기지 않으면 어디라도 덧나는지 교육장소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고 보니 바로 코앞에 두고 빙빙 돌지 않았던가...

우리들은 서로 어이없어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보를 터트렸다. 교육 장소에는 많은 분들이 도착하여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가족 걱정들은 모두 잊었는지 그 순간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농업회의소에서의 강의 모습

첫 날은 해외연수교육을 위한 사전교육과 함께 해외교육동안 지켜야 할 에티켓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서로 인사와 자기소개 등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7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는 나라이기 때



문에 모두 잠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옆에 자고 있는 동료들 깨워 이야기보따리를 풀기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했다.

우리는 첫날 아침식사를 하고 (새로운 식사에도 불구하고 모두 잘 먹었다.) 파리 동부 약 250km에 위치한 브레타뉴 농업회의소를 방문하였다.

기차를 타고 브레타뉴를 가는 동안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이 아름다웠다.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었지만 모두 자기들만의 멋을 뽐내고 있었다.

농업회의소에서 여성위원이 나와 '낙농가 운영의 3가지 형태' (개인경영, 부부경영, 가족형 영농조합법인, 즉, 법인경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발렌 지역의 유가공 축산업 회장이 나와 '유가공 축산업의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 이들의 축산기술이나 낙농의 운영형태는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가들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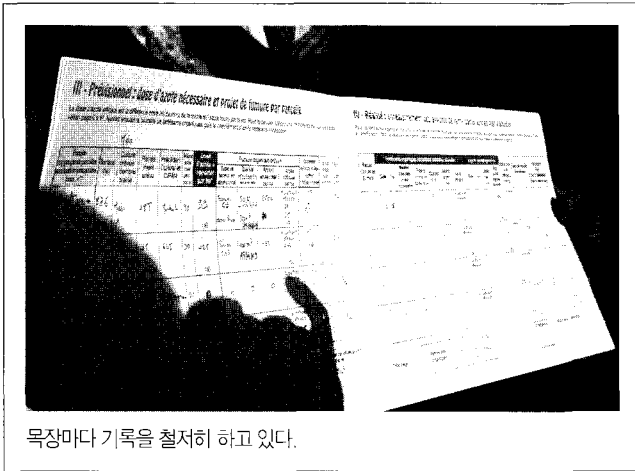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조그만 마을에서 유가공 직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도농가를 찾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보니 그들도 원유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애써 키운 작물을 수확 할 수가 없어 들판에 그대로 버려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았다.

버려진 옥수수..!! 땅이 부족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농장에 도착하였다. 바람에 날려 살포시 우리의 코끝을 간지르는 냄새는 우리들 농장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곳곳마다 가득히 쌓여진 조사료와 그들의 여유로움 인듯하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철두철미한 그들의 준비성과 노력이었다.

2000년부터 치즈생산판매를 시작하였다는데 서두르지 않고 계단을 오르듯이 한발 한발 준비





목장마다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움으로 비쳐졌다. 처음 접해보는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기관의 자문, 시장성의 사전조사 그리고 마케팅에서 판매교육까지... 목장유가공을 하려는 사람은 꼭 배워야 할 점인 듯하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목장형 유가공이지만, 큰 공장처럼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제품의 품질 또한 아주 훌륭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공감어 갔다.

프랑스의 일반적 목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에 구분이 나누어 있는 듯 한데, 부인은 목장 안에서 소 관리 및 세무관련 장부정리, 남편은 넓은 초지에서 농작물 경작 및 기계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역과 경종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이 방문한 지역의 대부분 젊은이들은 농촌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리의 농촌현실과는 매우 상반되는 현상이다.

목장형 유가공을 생각하고 있는 나는 프랑스의 형지스 농수산물유통센터와 독일의 휘텐탈 유가공장을 방문하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아주 작은 치즈에서 100kg, 200kg 이상 되는 치즈와 수십 가지의 치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또 그것이 모두 소비되는 유럽,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치즈에 '치' 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한 유럽의 치즈시장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들의 치즈시장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들의 치즈시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속에서 나름 희망도 보았다. 우리도 발효음식을 많이 먹는 국민들로서 한국정서에 맞게, 또 자기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한다면 결코 좌절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교육농장!! 이번 교육에서 연수생 모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희망을 품은 분야인 것 같다.

교육농장의 목적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하여 각종 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게 학교 공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체험목장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체험목장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차별화가 거의 없다보니 일회성에서 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회성 체험이 아닌 2회, 3회, 4회...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체험을 넘어서 교육까지 결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교육농장 방문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다.



형지스에서 치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농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교육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장주의 자질과 자세가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첫째, '목장주가 정말 하고 싶어야 한다.'

어정쩡하게 "해볼까"라고 한다면 포기하라

둘째, '목장주의 지적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하여.

셋째, '돈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목장주의 마인드 변화.'

1차에서 3차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 사람들의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하며, 농촌사람들의 마인드 변화를 위하여 목장주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의형성.'

상대를 경쟁상대로 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목장주의 마인드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나만의 카드를 가져야 한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다른 목장과와의 차별화를 가져야 한다.

교육농장은 위에서 말한 목장주의 자질과 자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 꼭



교육목장의 교육자료



목장주로부터 교육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필요하며 혼자서 만이 아니고 낙농가 모두가 함께 경쟁상대가 아닌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바라본 교육농장은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쉬운듯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과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새싹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 그들(체험객)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낙농도 한미-FTA, EU-FTA를 맞이하여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1차 산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2차, 3차 산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게 초석을 다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낙농가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빨리 세상 밖으로 뛰어나와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 그리고 폭넓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들과의 싸움에서 꼭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다.

송아지 한 마리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남편을 도와 일을 하기도 했지만 큰딸이 야장아장 견고하나, 둘, 셋 하며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김경미는 아이들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해. 일은 내가 할게.”라는 말 한마디로 나의 목장외면은 시작되었다.

주변에서 간혹 “목장은 자고로 3W가 되어야 가능한데” 하면서 한 번씩



상기시켜 '혹 우리목장이 번창하지 않는 이유가 부족한 W 중 하나인, <나> 때문인가?' 하고 고민을 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지만, 남편의 끝없는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목장외면은 지속되었고 아이 들이 자라면서 멋진 40대를 위하여 외면에서 외도로 직장생활을 시작하 였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간혹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목장을 꾸려나갈 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돌리곤 하였다. 그렇게 지금까지 목 장이라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목장형 유가공을 알게 되면 서 먼 길을 마다않고 주말과 휴가를 틈타 유가공을 공부 하러 다녔고. 그 배움의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직장 빠지는 횟수도 많아졌다.

내가 유가공을 공부하면 할수록 갈등, 두려움, 고민 또한 늘어갔다. 오 늘은 '희망' 이 내일은 '두려움' 이, 또 다음날은 '행복' 이 그 다 음날은 '고달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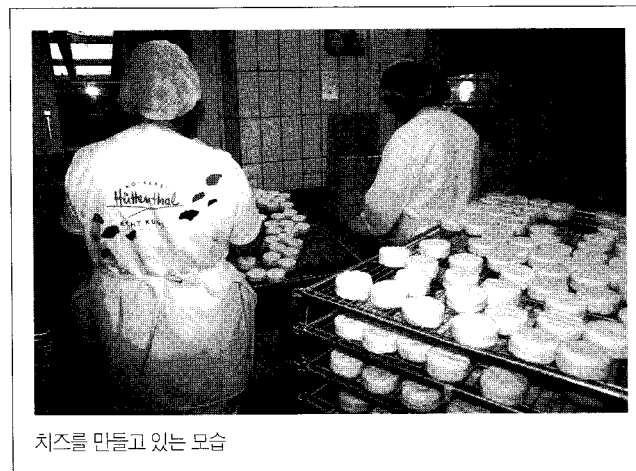
이렇게 목장형 유가공=치즈라 는 명제를 놓고 짧다면 짧고 길다 면 긴 시간동안 밀그림 그려온 것 을 걸어로 표현하려고 이제 과감 하게 외도의 날개를 접었다.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한 기로 에서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 화교육과 이를 통한 해외연수교 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나 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는 앞 으로도 끝없이 많은 시간을 공부 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 람이다. ☺



너무나 아름다운 방목장 전경



치즈를 만들고 있는 모습